**[공통 구조 해석]**

**{시간 및 태도}**

**수행시간 및 수검태도**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무성의하거나 회피적인 태도 또는 충동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시작 자체가 더디면 특정한 의미나 내적 갈등을 시사하며, 수정을 반복한다거나 세부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불안감이나 강박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속도가 느릴 때는 무력감이나 동기 저하가 의심될 수 있다.

**{순서}**

**그리기 순서**에 있어 전형적이지 않은 순서로 그릴 경우 현실검증력의 저하나 사고장애를 시사할 수 있다. 남성 혹은 여성 등 특정 이성을 먼저 그리는 경우에는 성 정체감 또는 성 역할에 대한 갈등, 특정 이성에 대한 심리적 비중이 큰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행의 질이나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불안을 보이다가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크기}**

**크기**에 관한 분석에서는, 대상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심신 에너지가 항진되었거나 충동성, 과대사고, 열등감에 대한 방어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반대로 지나치게 작은 크기는 무력감, 열등감, 회피적이거나 우울한 성향을 시사한다.

**{위치}**

**위치**와 관련해서는, 도안이 용지 중앙에 위치하면 적당한 안정감 또는 융통성 부족을 의미할 수 있다. 우측으로 치우치면 욕구지연능력이, 좌측으로 치우치면 충동성을 암시한다. 상단에 그려질 경우 정서적 불안정이나 현실과의 괴리가, 하단에 그려질 경우 의존적이거나 우울한 심리를 시사한다. 그림이 용지 가장자리에 위치하면 위축감이나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선}**

**선의 강도 및 필압**에서, 선이 지나치게 진하고 강하면 충동성이나 공격성, 불안감을 나타낸다. 반대로 선이 매우 흐리고 약하면 무력감 또는 위축감과 관련이 있다.

**선의 질** 측면에서는 긴 획을 많이 사용하면 단호함, 안정감, 높은 포부를 의미하지만 짧은 획이 많으면 충동적임을 드러낸다. 선이 스케치 하듯이 이어지면 신중함을 추구하거나 우유부단함을 확인할 수 있고, 선이 빽빽하면 높은 긴장감을 암시한다. 음영처리는 적응적인 성향 또는 불안이나 우울감과 관련될 수 있다.

**선의 방향**에 관해 수평선이 강조되면 두려움이나 자기보호적 성향, 수직선이 강조되면 결단력과 주장성을 암시한다. 선의 방향이 자주 바뀌면 정서적 불안정이 나타난다.

**{방법}**

**세부묘사**에서, 전체적으로 세부묘사가 과도하면 강박적이거나 주지화 경향을 보이고, 특정 부위에 세부묘사가 집중되면 해당 부위와 관련한 상징적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세부묘사의 생략은 공허감이나 우울감과 연결된다.

{방법}

**지우기**에 있어, 수정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안이나 불만족감을 드러내고, 수정을 통해 그림의 질이 떨어지면 해당 부분에 강한 정서적 갈등이 있음을 뜻한다. 수정을 통해 그림의 질이 좋아지면 적응적임을 의미할 수 있다.

**대칭**에서는 대칭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강박적, 주지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대칭성이 결여되면 정신증, 뇌손상, 지적장애 등을 시사할 수 있다.

{방법}

**왜곡**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왜곡은 불안이나 심리적 갈등과 관련되고, 심한 왜곡은 현실검증력 장애, 뇌손상, 지적장애와 연관될 수 있다.

**투명성**이 나타나 (내장기관이나 신체 부위가 보인다면) 인지적·심리적 미성숙, 뇌손상, 지적장애, 현실검증력 문제 등이 의심될 수 있다.

**움직임**이 적절하게 표현될 경우 심리적 유능함을 시사하고, 움직임이 지나치게 많으면 과잉 활동성이나 조증과 관련될 수 있다.

{방법}

**회전**하여 제시한 용지 방향이 바뀌었다면 반항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과 관련된다.

**불필요한 내용**으로 태양, 꽃, 동물, 사물 등 부가적 대상이 과도할 경우 의존욕구나 산만함을 나타내며, 이때 추가된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시간 및 태도}**

**검사 시의 태도와 소요시간**

검사 시에 보인 피험자의 태도에 따라 같은 그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부묘사가 불충분하고 생략된 부분이 많은 그림이라도, ① 피험자가 성실히 그렸을 때와 ② 아무렇게나 그렸을 경우 그 의미가 다르다.

그림을 그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지나치게 길 때, 지시를 하고나서 한참동안 그리지 않는 경우는 그 그림이 피검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그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속의 어떤 부분을 계속 지우고 고쳐 그리는 경우는 그 부분이나 그 부분이 **상징**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라할 수 있다.

**{순서}**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그렸을 때 변화된 점**

예를 들어 그림 속 인물의 어깨를 좁게 그렸다가 다시 넓은 어깨로 고쳐 그린다면,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열등감**으로 반응하나 곧 **과장된 자신감**으로 자기를 포장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순서}**

**남성상/여성상을 그린 순서와 그려진 모습을 비교**

자기와 같은 성을 먼저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성을 먼저 그리는 경우, 성 역할 동일시에 갈등이 있거나 또는 현재 생활에서 특정 이성에 대한 비중이(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상태임을 시사한다. 또한 그려진 남녀상의 모습을 **비교**해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상은 크고 위협적으로 그린데 비해서, 남성상은 조그맣고 약하게 그린 남자 피검자는 여성을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소극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로 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반적인 순서에서 이탈된 경우 중요한 Sign임**

예를 들어 인물상의 경우 머리부터 그려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발 → 머리 → 무릎 → 다리의 순서로 그린다면, **사고장애나 전반적 발달장애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완성된 그림만 보아서는 알아차릴 수 없으므로 그리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 및 태도}**

**그림을 그리는 과정 동안의 수행 수준의 변화**

검사태도에서 처음에 다소 혼란을 보이다가 곧 안정을 찾는 경우는 **상황불안**을 나타내는 것

으로,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처음에는 잘 그리다가 차츰 피로를 드러내고 미완성으로

끝내는 경우에는 쉽게 지치고 포기해 버리는 **우울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크기}**

**그림의 크기**

그림을 얼마나 크게 혹은 작게 그렸는가 하는 것은 피검자의 자기 존중감, 자아팽창 여부,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여부 등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공격성, 충동적인 성향, 행동화(acting out)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보통크기**  
Levy에 의하면 보통은 종이 크기의 약 2/3에 해당하는 정도로 그리며, 이는 피검자가 자신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적절감(adequacy feeling)이 적정한 수준임을 의미할 수 있다.

{크기}

**크게 그린 경우**  
그림을 종이에 꽉 찰만큼 지나치게 크게 그리거나 때로는 종이 크기가 모자랄 정도로 과도하게 크게 그려 책상까지 선을 긋고 전체를 다 그리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는 종이라는 주어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자기표현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① 공격성이나 충동 조절의 문제, 이와 관련된 행동화(acting out)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또는 현재 피검자가 ② 자아경계(ego boundary)가 취약해지는 수준에 이르러 자아팽창(ego inflation 및 expansiveness), 과대망상 등을 동반하는 조증상태에 있음을 반영할 수도 있다.  
나이가 어린 아동이 그림을 크게 그릴 경우 이는 주로 과활동성, 공격성, 인지적 미성숙과 더 관련되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내면의 열등감과 부적절감에 대한 과잉보상욕구, 행동화 경향성, 충동성을 시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성인이 그림을 과도하게 크게 그렸다면 이는 주로 조증상태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작게 그린 경우**  
종이의 크기에 비해 그림을 지나치게 작게 그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피검자 내면에 열등감, 부적절감이 있거나, 자신이 없고 자기효능감이 부족함을 나타낼 수가 있다. 또 매우 수줍어하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지나치게 억제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당위명제를 내면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위축감 및 이와 관련된 우울감, 사회적으로 실제로 위축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아구조가 매우 약하고 자아 강도가 낮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종이의 위쪽에 치우쳐서 아주 작게 그렸을 경우에는 에너지 수준이 낮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며,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으며, 폐쇄적이며 자기억제가 강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방법}**

**지우개의 사용**  
그림을 그리다가 자주 지우거나, 특히 그림의 어떤 부분을 지웠을 경우는 그 피검자에게 독특한 내적 갈등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지나치게 여러 번 지우는 경우**  
이는 내면의 불확실감, 내적 갈등으로 인한 우유부단함, 내면의 불안감과 초조감, 자기 불만족 등과 관련될 수 있다. 특히 지운 다음에 다시 그렸는데도 그림이 향상되지 못했다면 이는 내적인 불안감을 좀 더 강하게 지지해 주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지우고 나서 다시 그린 그림의 향상 여부**  
지우고 나서 다시 그렸을 때 그림이 나아진다면 이는 적응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면 이는 그림을 그린 대상이나 그것이 **상징**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강한 **정서적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세부적인 요소, 예를 들어 눈이나 팔등을 그렸다가 지운 다음에 다시 그리지 않았다면 이는 그 부분 자체가 그 부분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 강한 내적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확률이 높다.  
**{위치}**  
**종이 가운데 그렸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종이의 중앙부분에 그리는 것이 가장 흔하며, 모든 연령층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적정한 수준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운데 부분에 그리려고 애를 썼다면, 피검자가 불안정감을 느끼거나, 인지적 ․ 정서적으로 경직된 특성(rigidity)이 있거나, 혹은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스타일일 수도 있다.

**오른쪽에 치우쳐 그렸을 경우**   
그림을 오른쪽에 치우쳐 그리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그림을 종이의 오른쪽 부분에 그리는 사람은 좀 더 ⓵ 안정되어 있고 행동 통제를 잘하며, 욕구만족 지연능력이 갖추어져 있고, 지적인 만족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Buck, 1950), 인지적으로 ⓶ 감정을 통제하는 경향이나 억제적 경향을 반영한다는 연구도 있다(Koch, 1952). 또한 ⓷ 내향성이나 검사자 혹은 권위적 대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경향을 나타낸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Wolff, 1946).

**왼쪽에 치우쳐 그렸을 경우**   
이 역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론적으로 추론하기는 어려우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그림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성, 욕구와 충동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성, 변화에 대한 욕구, 외향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위쪽에 치우쳐 그렸을 경우**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그림을 종이의 위쪽에 그릴 경우 욕구나 포부수준이 높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갈등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실세계에서보다는 자신만의 공상 속에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경향이 상황이나 처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낙관주의나 대인관계 혹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과 고립적 경향과 관련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Machover, 1949).

**아래쪽에 치우쳐 그렸을 경우**   
그림을 과도하게 종이 아래쪽에 치우쳐 그릴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내면에 상당한 불안정감과 부적절감이 내면화되어 있거나 혹은 우울증적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공상에 자주 빠지거나 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현실에 뿌리를 두고 분명하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위치}

**구석에 몰아서 그렸을 경우**  
그림을 종이의 네 귀퉁이(corner)에 몰려서 그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축감, 두려움, 자신 없음**과 관련될 수 있다.  
**① 왼쪽 상단구석 :** 왼쪽 상당 부분에 몰아서 그리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은 피검자 내면에 퇴행적인 공상(regressive fantasy), 즉 정신분열적 ․ 자폐적 공상이 있다는 것으로, 때문에 이를 “정신분열성 구석(schizoid corner)"이라고도 한다. 주로 퇴행적인 경향성, 불안정감, 위축감, 불안감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또 연령이 올라갈수록 점차 왼쪽 상단에 그리는 경향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② 오른쪽 상단 구석 :** 오른쪽 상단 구석에 몰아서 그릴 경우에는 불쾌한 과거 기억을 억압하고자 하는 바람, 미래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 미래 지향적인 환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한다.  
**③ 하단구석 :** 하단 왼쪽 구석은 과거와 관련된 우울감, 하단 오른쪽 구석은 미래와 관련된 무망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④ 검사지 밑바닥이나 가장자리 :** 검사지 밑바닥이나 가장자리에 지나치게 붙여서 그런 경우, 불안정감, 자신감이 없음, 타인에게 지지받고자 하는 욕구, 의존적인 경향,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Hammer, 1971), 새로운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이나 환상 속에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Jolles, 1964)과 관련된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었다.  
  
**{선}**

**필압**  
연필을 가지고 얼마나 힘을 주어 그림을 그렸는가는 피검자의 에너지 수준, 긴장정도, 공격성 및 충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필압이 강할 경우**  
힘을 주어 눌러서 그린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먼저 현재 상당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성격적으로도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쉽게 불안해지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나, 성격이 단호하고 자기주장 적이고 야심이나 포부수준이 높거나, 편집증적인 경향이 있거나, 공격적이고 그러한 공격성이 외현화되는 스타일이거나 충동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것 등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기질적 장애, 뇌염이나 간질환자, 정신지체아들도 힘을 주어 진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다.

**필압이 약할 경우**  
선을 연하게, 약하게 그린 경우에는 적응을 잘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자신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자주망설이고 두려움과 불안정감을 느끼거나, 불안증상과 관련된 신경증적 상태에 있거나, 우울증 및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 등이다.  
특히 불안을 넘어 공포나 두려움과 관련된 신경증, 만성 조현병, 긴장성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선이 아주 얇은 경우가 많다.

**필압이 변할 경우**  
한 장의 그림 속에서도 강하고 약하게 그리기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며, 융통성과 적응능력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시종 진하게 혹은 옅게만 그리는 경향은 긴장성 조현병, 혹은 정신지체인 경우에 흔하게 나타난다.  
**{선}**

**획이나 선의 특징**

**획을 길게 그릴 때**  
이는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경향 혹은 지나치면 과도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단호하게, 별다른 주저함 없이 획을 잘 그렸을 경우 이는 안정감, 완고함, 야심이 있고 포부수준이 높음을 시사할 수 있다.

**획을 짧게 그릴 때**  
지나치게 짧게 툭툭 끊어서 그릴 경우는 충동성이 강하거나 과도하게 흥분을 잘하는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Alschuler &Hattwick, 1947; Hammer, 1971)

**획을 직선으로 그릴 때**  
이는 자기주장적인 경향, 민첩성, 우유부단하지 않게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능력, 단호함 등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나칠 경우 경직성이나 융통성 부족 혹은 충동적인 경향을 반영할 수도 있다.

**획을 곡선으로 그릴 때**  
이는 의존성, 불안감, 불확실감, 우울감, 수줍음이나 사회 불안적 경향, 우유부단성과 꾸물거림, 여성성, 순종적인 경향성과 관련될 수 있다.

{선}

**수평적인 움직임을 강조하여 그린 경우**  
때로 선을 그릴 때, 가로나 세로 방향을 좀 더 강조하여 그리는 경우가 있다. 가로방향, 즉 수평적 방향의 선을 강조하여 그린 경우는 연약함, 두려움, 자아 보호적 경향성 혹은 여성성과 관련될 수도 있다.

**수직적 움직임을 강조하여 그린 경우**  
세로방향, 즉 수직적 방향의 선을 강조해서 그린 경우는 남성적인 단호함이나 결정력 혹은 과잉활동성을 시사한다.

**획을 여러 방향으로 바꾸어 그린 경우**  
획이 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여러 번 방향을 바꾼 경향이 아주 현저하고 일관되어 보이지 못할 때는 불안정감, 정서적인 동요, 불안감을 시사한다.

**선을 빽빽하게 그린 경우**  
선을 빽빽하게 그려 넣어 마치 면을 구성하는 것처럼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과도할 경우 내적인 긴장감이 매우 높거나, 공격적인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을 지그재그로 그린 경우**  
내면에 적대감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방법}**

**세부묘사**   
그림을 구성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그리는 가를 말하는 세부묘사는 피검사자가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면을 의식하고 처리해가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나무, 굴뚝, 사람의 눈 등과 같이 세부적인 부분을 전체 그림과 조화롭지 못하게 했을 경우는 내적인 불안감, 위축감, 부적절감을 시사한다.

적절한 수준의 세부묘사가 생략되어 있다면 사회적인 위축, 공허감, 에너지 수준의 저하와 같은 우울증적 특성을 시사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정신병적 상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상세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신과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적절히 통합하지 못하는 사람, 환경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강박적인 사람, 정서장애, 신경증환자, 초기분열증, 뇌 기질장애자 등의 그림에서 자주 나타난다.  
**{방법}**

**생략과 왜곡**  
그림의 어떤 부분이 생략 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피검사자에게 있어서 **갈등**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왜곡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타날 경우는 **현실검증력**의 장애를 시사하며, 드물기는 하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한다. 주로 정신증 환자, 뇌손상 환자, 심한 정신 지체자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방법}  
**그림자와 음영**  
그림의 상에 그려진 그림자는 의식 수준에 있어서 불안과 갈등이 있음을 나타낸다. 집, 나무, 인물화의 내부 전체나 일부분을 진하게 칠한 음영이 있는 그림은 **불안**과 **강박**으로 인한 우울한 기분을 나타내며, 미숙한 정신 상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음영이 연하게 그려진 경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어느 정도 **과민**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의 일부분에 보이는 음영은 그 부분에 관련된 불안과 갈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테면 지붕의 음영은 현실보다는 공상에 만족을 구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창문의 음영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외계에 대한 적의에 대하여 불안을 나타낸다.

{방법}

**투시화**  
투시화는 정서적, 기질적 원인으로 인해 성격의 통합을 상실, 현실검증의 장애로 자기와 외계와의 관계를 바르게 다룰 수 없어 양자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투시화는 병적인 징조이며,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나기 쉽다. 예를 들면 의복을 그렸지만 그 속에 여성의 유방이 비치게 그린 것이나 몸속의 내장을 그린 것 등의 투시화는 조현병으로 의심이가지만, 옷의 소매에 팔이 비치도록 그려져 있는 경우는 수정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로 인한 부주의로 볼 수 있다. 취학 전의 아동의 경우는 투시화를 그리는 경우라도 현실 검증력이 확립되지 않은 연령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  
**대칭성**  
대칭성의 결여는 피검자의 불안전감을 나타내며, 신체적면에 부적응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좌우 대칭성이 지나쳐서 경직된 인상을 주는 것은 **강박**적이고 충동성의 표현을 **통제**하며, 타인과 거리감을 두고 접촉하고, 억압과 지나친 지적 반응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경직된 대칭성은 우울한 사람에게서 보여 지며,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며 괴기한 대칭성은 망상형 조현병에서 보여 진다. 인물화에 있어서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대칭적인 것은 신체의 부조화를 두려워하며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자기 통합을 위협하는 충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보여 진다. 주위산만해지고 통제력을 갖지 못한 조증이나 히스테리 경향성을 지닌 사람은 대칭성을 무시하기 쉽다.

{방법}  
**원근법**  
올려다보는 그림은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는 감정과 자신은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자기비하적인 평가, 위화감 등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으로부터 행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폐쇄적인 사고의 소유자에게서 보여 진다.  
멀리보이는 그림은 움츠려드는 사고와 타인에게 근접하기 어려운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자신의 가정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감정과 가족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감정을 지닌 사람이 그린다고 Hammer는 말했다.  
가까이 보이는 그림은 가정에 도달할 수 있는 따뜻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 그린다. 일반적으로 조감도나 올려다보는 그림은 모두 특별한 것으로 피검사자의 부적응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방법}  
**움직임**  
사람이 걷거나 뛰는 모습을 그리거나,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등 그림에 움직임이 표현되는 경우 그것이 지나치지 않다면 이는 내적 유능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우울감이 내면화된 아동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ADHD나 경계선 장애 아동은 지나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그린다고 한다.

{방법}  
**지면의 선**  
지면의 선은 피검사자가 **불안감**을 안고 있으며, 무엇인가 필요한 틀을 그림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Jolles는 강하고 진하게 그린 지면선은 불안을 나타낸 것이며, 지면선이 경사를 이루면서 양끝이 내려간 것은 자신이 고립되었고 몸을 드러내 놓고 있다는 감정과 어머니에 대한 의존심, 때로는 노출증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방법}  
**그림에 다른 것을 부과하여 그림**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그림에 태양을 첨가하여 그리는 것은 권위적인 인물로서 부나 모를 나타내며 피 검사자가 그것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날씨가 표현된 것은 피검사자가 자신의 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표시한 것이다. 외적 환경이 자신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거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궂은 날씨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방법}

**용지의 회전**  
용지를 제시한 방향과 다르게 용지를 회전시켜서 그리는 것은 ① 공격성과 거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지나칠 경우 내적인 부적절감이 심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만 돌린다면 이는 ② 보속성(perseveration)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③ 시각-운동 협응력의 어려움이 있을 때 종이를 자주 돌린다는 견해도 있다.

**[집]**

**{설명}**

**집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공간이다. 때문에 집 그림에는 아동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족, 가정생활, 가족관계, 가족구성원 각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표상, 생각, 그와 관련된 여러 감정, 소망들이 투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또 집은 일차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실과 관계를 맺는 정도와 그 양상, 그리고 그 개인만의 내적 공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다.**

**집 그림에서는 단독주택을 그리는 것이 보통이며 피검자의 80%가량이 전통적인 주택을 그린다. 약 8%의 사람이 특수한 집인 교회, 절, 학교, 빌딩, 아파트 등을 그린다. 이러한 특수한 집을 그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림 그린 후의 질문’이 필요하다. 자신의 가정에 대해 불만이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붕}**

**지붕(개인의 내적 공상)**  
지붕은 개인의 내적인 공상이나 상상을 상징합니다. 지붕이 그림에서 생략되면 현실 검증력의 손상, 지적 장애, 심한 심리적 위축과 연관되며, 특히 조현병 환자에게서 자주 관찰됩니다. 지붕이 지나치게 작게 그려진 경우엔 내적 사고 활동이나 상상 자체를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지붕이 지나치게 크면 내적 인지활동, 즉 공상 등이 매우 활발하거나 자폐적으로 공상에 몰두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지붕 부분이 빗금, 덧칠, 장식 등으로 강조되어 있으면 내적 공상과 인지 활동이 활발하거나, 가상의 소망을 충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초기 정신증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만약 지붕이 기와 등으로 매우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적 공상을 통제하려는 강박적 노력이 개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벽}**

**벽(자아의 강도)**  
벽은 자아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벽이 허술하게 그려져 있다면 자아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벽이 생략되었거나, 선이 끊어진 모습이라면 현실 검증력의 손상이나 자아기능의 붕괴를 반영하며, 조현병 환자의 그림에서 자주 보입니다. 벽의 경계선이 강하게 강조된 경우엔 자아의 경계를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엿보이고, 이 역시 초기 정신증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벽돌 무늬, 표면의 결 등 매우 세밀하게 벽을 그릴 경우엔 자기 통제감을 유지하려는 완벽주의, 강박적 성향 또는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며,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강박장애와 연관이 있습니다.

**{문}**

**문(환경과의 능동적 소통 방식)**  
문은 환경과의 능동적인 소통 태도를 상징합니다. 문이 아예 그려지지 않았다면 환경과의 소통을 회피하거나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 고립감을 드러냅니다. 이는 초기 정신증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문이 너무 작다면 사회적 관계에 대해 접근과 회피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대인관계 기술 자체가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문이 지나치게 크면 애정, 관심, 의존 욕구가 크다는 뜻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면 외부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은 소망을 의미하고, 문이 닫혀 있거나 자물쇠 등으로 더욱 폐쇄적으로 표현되면 대인접촉에 방어적이고 경계성이 크며, 이는 편집증적 경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창문}**

**창문(환경과의 수동적 접촉)**  
창문은 환경과의 수동적인 접촉과 연관됩니다. 창문을 그리지 않았다면 대인관계에서 불편감이나 위축감을 반영하고, 창문이 지나치게 크거나 갯수가 많다면 자기 개방이나 관계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창문이 지붕에 그려진 경우에는 내적 고립감이나 조직화 능력의 어려움을 시사하며, 조현병, 조현형 성격장애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창문에 커튼이나 화병 등 장식이 있는 경우 환경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장식이 창문을 가릴 정도로 많다면 대인관계에서 철수하고 있음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굴뚝}**

**굴뚝(가족관계, 가정 분위기, 애정욕구)**  
굴뚝은 가족 내 분위기, 가족관계, 애정욕구의 상징입니다. 굴뚝을 쉽고 빠르게 그렸다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만족감이나 적응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굴뚝이 지나치게 크거나 강조되어 있다면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나 이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굴뚝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한 경우(예: 벽돌 무늬 등)에는 강박적 성향이 두드러지거나, 가족 간 친밀한 상호작용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격이 드러납니다. 굴뚝에서 연기를 강조할 경우,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긴장감 또는 애정욕구의 결핍감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기타 부수적 사물(태양, 구름, 잔디/나무, 울타리/담장 등)**  
태양은 강력한 부모, 자기대상으로서의 존재를 갈망하거나, 강한 애정 욕구나 그에 대한 좌절감을 상징합니다. 구름은 막연하게 존재하는 불안감을 의미하고, 잔디나 나무는 적당한 크기라면 내적 생동감과 에너지의 상징이지만 너무 크면 부모 등 강력한 자기대상의 경험과 연관됩니다. 울타리나 담장을 그림에 포함할 경우 방어적이거나 경계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각}**

**조망과 원근감**  
집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렸다면 현재 가정상황에 대한 불만족, 벗어나고 싶은 심리,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 대한 반감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집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리면 가족관계 내에서 수용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한다고 느끼는 감정, 열등감·부적절감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릴 경우엔 가정과의 정서적 거리감, 가족관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반영합니다.

**{문}**

**문**  
문은 집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때문에 집 그림에서 문은 타인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의미하므로, 세상과 자기 자신간의 접근 가능성(accesibility)을 나타낸다. 이러한 접근 가능성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성이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나 소망정도,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 거부감, 양가감정, 자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나 긴장감, 친밀한 관계형성에 필요한 공감능력, 타인의 인정이나 애정에 의존적인 정도 및 이에 대한 욕구와 소망, 실제로 얼마나 현실과 세상과의 접촉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고립되고 위축되어 있는 가 등이다.

① 문은 피검사자의 20%정도가 그리지 않으며 중문만 그리는 것이 많다.  
② 문이 집에 비해서 작은 출입문은 대인관계, 사회성의 결핍과 무력감, 현실도피를 뜻하고 큰 경우는 적극적인 사회성을 뜻한다.  
③ 문에 열쇠 등의 장치를 강조하는 경우는 의심이 많거나 방어적인 감수성을 나타낸다(망상분열증 경향).  
④ 문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존심과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바란다.  
⑤ 문을 측면에 그렸을 경우는 도피적 경향이며 신중성을 나타낸다.  
⑥ 문을 최후에 그리며 특히 강조할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소극적이고 현실 도피적 경향으로 보아야 한다.

**{창문}**

**창 문**  
창문은 세상을 내다보고, 또 세상과 타인이 집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통로이다. 때문에 이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피검자의 주관적인 경험, 자기 혹은 자기대상이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감정들과 관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큰 창문을 하나 그리거나 작은 것을 두세 개, 그리고 크기가 적당하며, 집의 벽에 위치하고 화분이나 커튼으로 창문이 많이 가려지지 않게 그린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된다.  
① 창문을 그리지 않는 것은 외계와의 접촉을 피하고 후퇴적, 적의적 경향을 나타낸다.  
② 문과 창문을 그리지 않는 사람은 정신분열증으로 보아야 하며 주의 깊은 관찰이 요망된다.  
③ 문을 특별히 강조하고, 엄중한 격자가 있는 창문에 카텐을 강조하는 사람은 강박경향이 심하다(자전거 절도범에 많다).  
④ 3각형의 문은 여성 성기의 고착과 과도한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여성의 성기를 보고 싶은 마음)  
⑤ 벽과 벽, 상하계층의 일치성이 없는 창문은 사물에 대한 통합력이 결핍되고, 환경의 적응이 곤란한 정신분열서의 초기 증상으로 의심해야 한다  
⑥ 2층 이상의 고층건물 특히 수십 층의 고층 건물을 강조하면 망상 분열증으로 의심해야한다

**{벽}**

**벽**  
벽은 집이 견고히 서 있도록 지탱해주고, 외부와 내부를 분리시키며, 외적인 환경에서 **집의 내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집 그림에서 벽은 외적인 위협은 물론 정신 증으로 자아가 붕괴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 즉 자아 강도와 자아통제력을 나타낸다.  
대개 벽의 선이 적절히 연결되어 있고, 직선으로 그려지고, 벽이 투명하게 비치지 않으며, 적어도 벽이 두 개이고, 3차원적으로 그리며, 선의 질이나 음영이 적당할 때 이러한 자아강도나 자아통제력이 적절한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① 벽에 방의 내부를 그리는 것은 개념 능력의 미숙과 현실검증력의 미숙을 나타낸다.  
② 벽의 선을 나타내지 않고 용지의 밑 부분에 직접 그린 선이거나 또는 벽의 밑 선을 그리지 않는 그림은 현실과의 접촉이 어려움을 뜻한다.  
③ 벽을 그리고 지면의 선을 특히 강조할 경우에는 현실수준의 높은 불안을 의미한다.  
④ 벽의 한쪽 면과 다른 쪽 면이 적절히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기질성 환자로 의심해 보아야 하고, 원시적 충동을 통제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벽의 면에 아무것도그리지 않는 그림은 현실 도피적 사고, 우울, 대인관계 등의 결핍이 심하고, 정신분열적인 반응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굴뚝}**

**굴 뚝**  
굴뚝은 집에서 난로를 피웠을 때 연기가 나오는 곳이고, 난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불을 쬐거나 요리를 하는 것과 같이 온정적인 일들과 관련된다. 때문에 굴뚝은 가족 내의 관계와 분위기, 가족들 간의 애정과 교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굴뚝의 연기등은 이러한 애정욕구, 애정욕구와 관련된 좌절감이나 상실감, 우울감 등에 대해 시사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전 초가나 한옥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으므로 대로 동화책이나 그림책에서 많이 보았던 굴뚝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가정 내에서 애정욕구의 좌절이나 우울감이 내제 되어 있지만 이를 주로 공상세계에 빠짐으로써 보상해 왔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연기를 많이 그렸을 경우에는 피검사자의 긴장과 가정에 대한 갈등, 정서혼란을 뜻한다.

**{지붕}**

**지 붕**  
지붕은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내적인 공상 활동,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 기억과 같은 내적 인지과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붕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붕의 크기가 문제시 된다.  
① 지붕이 크고 다른 부분이 작은 집 : 과도한 공상과 대인관계가 후퇴적 경향.  
② 벽과 함께 그린 지붕 : 심한 공상적 사고이며, 정신분열증으로 의심이 가는 자.  
③ 지붕의 선이 약한 그림 : 자기 통제가 약함을 의미  
④ 지붕의 선을 강하게 표시하는 자 : 공상적 경향이 자기통제로부터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자기 방어를 뜻하고 불안신경증 환자에게 많다.  
⑤ 지붕의 기왓장을 하나하나 선으로 면밀하게 그리는 자 : 강박적인 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⑥ 지붕이 파괴되거나 금이 간 그림 : 자기 통제력이 억압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

**{계단 및 출입로}**

**계단이나 출입로**  
현관으로 향하는 계단이나 오솔길 모양으로 출입로를 그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세상과 문과의 직접적인 연결통로를 그렸다는 의미에서 타인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 즉 근접성(approachability)을 의미한다. 대게 종이 밑쪽에 직선모양으로 그린다면 이러한 근접성이 적절한 수준임을 나타낸다고 본다.

**{선}**

**집과 지면이 맞닿은 선**  
집과 지면이 맞닿은 것을 표시하기 위해 선을 그리는 경우가 있다. 이 선은 상징적으로 그 사람과 현실과의 접촉 및 그 접촉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공상에 몰입해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있는 듯한 그림을 그린다. 다시 말해서, 집의 바닥이 땅에 닿아있는 방식은 안정성, 현실과의 접촉을 나타낸다.

**[나무]**

**{기타}**

**나무를 그릴 때 피검자는 수많은 기억으로부터 그가 가장 감정이입 적으로 동일시했던 나무를 선택한다(Hammer, 1958) 여러 그림 가운데 특히 나무와 사람 그림에는 신체상 혹은 자기개념과 같은 성격의 핵심적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나무에는 좀 더 깊고 무의식적인 핵심감정이 드러난다.**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하였을 때 나무 그림에서 병리적인 징후들이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치료적 호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또 나무 그림은 피검자의 입장에서 자기상이 투영되리라는 짐작이 덜 되므로 방어가 덜 일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둥}**

**기둥(자아 강도, 내면화된 자기대상의 힘)**  
기둥은 개인의 자아 강도와 내면에 자리잡은 자기대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기둥이 두껍고 크게 그려졌다면 이는 자아의 힘이 강하고 심신에너지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기둥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본인이 느끼는 자아의 취약함을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시도이거나, 충동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둥이 좁고 가느다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둥을 생략하고 그루터기만 그렸다면 심한 유약감이나 자기 손상감, 우울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둥에 옹이처럼 구멍을 그린 경우, 성장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 옹이 구멍 안에 동물을 그렸다면 안전한 곳에 숨고자 하거나, 일시적인 퇴행을 통해 손상된 자아 에너지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뿌리}**

**뿌리(안정감, 자신의 근본적 모습)**  
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감과 근본적인 존재감을 상징합니다. 뿌리를 아예 생략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이나 자신감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만약 뿌리가 없고 나무 끝이 땅에 닿아 있다면 자기 자신과 단절감을 느끼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은 느끼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기둥 끝이 종이의 밑면에 닿아 있다면 외부의 지지를 통해 겨우 안정감을 얻고자 함을 나타내며, 부적절감, 우울감,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심리 상태가 엿보입니다. 뿌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역시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을 드러내며, 이것을 보상하려는 심리가 투영됩니다. 뿌리가 발톱모양으로 표현되면 현실과의 접촉이 약해지고 자아가 붕괴될 것 같은 공포와 위기의식이 드러납니다. 또한 땅 밑으로 뿌리가 투영되어 있으면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5세 이하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관}**

**수관(내적 공상, 사고활동)**  
수관은 창의적 상상이나 사고 활동을 상징합니다. 수관이 크고 구름처럼 펼쳐져 있다면 이는 현재 현실에 불만족하여 적극적으로 공상을 하거나 머릿속 활동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수관이 뒤죽박죽인 모습이라면 정서적 흥분이 크거나 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내적 상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관 부분에 덧칠로 지나치게 음영이 들어간 경우, 불안, 우울, 과민함 등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반영합니다.

**{나뭇잎}**

**나뭇잎(정서상태, 성격)**  
나뭇잎이 무성하게 그려졌다면 삶의 생산성을 강조하거나 유능하다는 자기표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잎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면 강박적 경향을 보여줍니다. 나뭇잎이 지나치게 크다면 내면의 부적절함을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심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잎의 끝이 뾰족하게 그려졌다면 이는 공격적인 행동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가지}**

**가지(상황 대처능력, 성취에 대한 소망)**  
잎은 거의 없고 가지가 길쭉길쭉한 그림은 조현성 성격으로, 내향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가지가 크고 굵을수록 성취동기와 포부 수준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지나치게 클 경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자신이 없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잉보상하려 함을 나타냅니다. 반면, 가지가 빈약하면 성장과 목표 추구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신감 부족과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잘려 나갔다면 심리적 외상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아예 생략된 경우에는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억제되고 위축된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수적 요소**  
열매, 꽃, 새, 그네 등 부수적 요소를 그렸다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이 있지만 그 불안을 보상하려는 욕구가 드러납니다. 특히 과일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거나 주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용 및 주제의 특이 형태**  
나무에 열쇠구멍 모양 또는 가지가 축 처진 버드나무처럼 특징적으로 그렸다면, 저항심,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우울하고 위축된 심리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를 그린 그림은 부적응적 양상이나 정신병리적 특성을 포함하며, 조현병, 우울증, 신경증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죽음을 외부로 귀인할 경우 심리적 고통이 외부요인 때문이라고 여기며, 내부 귀인일 경우엔 성격적 취약성이나 내면의 요인으로 고통받음을 나타냅니다. 열매나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대인관계에서의 좌절감과 그로 인한 고통이 투영됩니다. 아예 나무 대신 풀, 열매, 채소 등을 그렸다면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상태로, 사회적 위축이 큰 조현병 환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물이 묻은 나무를 그린다면 자아존중감 결여, 자기비하적 태도, 부적절감을 의미합니다.

**{기둥}**

**(1) 나무기둥**  
나무기둥은 나무를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상징적으로 그 피검자의 성격구조가 얼마나 견고한지, 즉 자기 혹은 내면화된 자기대상의 힘을 나타내준다.  
① 윤곽선을 그릴 때 지나치게 필압이 강하다면, 이는 자기 자신의 성격구조에 대한 위협에 지나치게 방어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② 나무기둥을 안 그렸을 경우 자아강도가 극도로 악화되었거나 와해되어 정신증적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  
③ 기둥이 지나치게 넓고 크게 그렸거나 너무 높이 그린 경우 실제로는 내적 성격구조가 약하고 자아 강도가 부족하면서도 이로 인한 불안감을 과잉보상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좁고 약하게 그렸다면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 위축되고 약하게 느끼고 무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무기둥이나 가지 등을 그리지 않고 난무 밑동이나 그루터기만 그리는 경우 심한 유약감, 위축감과 우울감을 의미한다.  
⑤ 나무기둥과 가지를 일차원적으로 그린 경우는 지능이 낮아 제대로 된 나무 그림을 그릴 수 없는지 혹은 기질적 손상이 있는지를 의심해볼 수 있다.  
  
**{가지}**

**(2) 나뭇가지**  
나무의 가지는 나무가 양분을 흡수하여 성장하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부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나뭇가지는 피검자가 환경에서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하는데 필요한 자원, 현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성취하고자하는 소망과 이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① 2차원의 보통 가지가 아니고 선으로 그린 가지는 유아에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학령기 이후에 선으로 그리면 지능과 성격 양면에 지체가 있음을 시사한다.  
② 선으로 그린 것 중에 그 선이 나무기둥, 줄기에 정확하게 그리지 않는 것은 무력감, 자아악화 등을 뜻하고, 기질적 장애나 심한 외상 경험이 있다고 보아진다.  
③ 나무기둥, 줄기에 잘 조화된 가지의 그림은 피검사자가 환경에 만족을 얻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잘 조화되지 못한 것은 스스로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④ 가지가 말랐거나 구부러진 가지는 심적으로 외상 경험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무력감 ․ 위화감 ․ 수동적인 것을 뜻한다. 마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예후가 좋지 못하다.  
⑤ 가지에 그림자를 보기 좋게 그리는 것은 타인과 교제를 잘하려는 것이다.  
⑥ 위로 뻗은 무성한 나뭇가지는 공상적이긴 하나 희망적이고, 활동적, 정열적이며, 밑으로 늘어진 나뭇가지는(수양버들) 소극적, 무력감, 비활동적, 후퇴적인 것을 뜻한다.  
⑦ 나뭇잎이나 열매가 땅에 떨어진 경우는 상징적으로 그 자신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좌절을 겪었거나 이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나뭇잎}**

**(3) 나뭇잎**  
나뭇잎은 외견이나 장식 때로는 활력을 표시한다. 또한 나뭇잎은 나무줄기나 나뭇가지 위에 그리는 것이 보통인데 나뭇잎을 나무줄기나 가지에 비유하여 해석해야 한다.  
① 나무줄기와 가지는 길고 큰데 비하여 나뭇잎이 작은 것은 유아나 노인이 많다하며, 이것이 성인에게 반응되었을 시는 정신적, 신경증적 퇴행을 고려해야 한다.  
② 나무줄기나 가지가 짧은데 나뭇잎이 무성하고 큰 그림은 희망적인 대망과 정열적인 것을 의미한다.  
③ 나무줄기나 가지가 지나치게 작은데 비하여 나뭇잎을 지나치게 크게 그린 것은 만족의 과다한 욕구로서 성격의 평형이 깨어져 불안한 자로 보아야 한다.  
④ 나뭇잎의 모양이 직선적이고 각이 난 그림은 분리적 성격이며 외계와의 순응에 곤란이 있다  
⑤ 나뭇잎이 둥근 그림은 사교적이고 명랑한 성격 경향이고 나뭇잎의 둥근 끝이 나무줄기 밑으로 처져 있는 것은 의지박약, 결단이 늦고, 감정이 변하기 쉽다.  
  
**{뿌리}**

**(4) 나무뿌리**  
나무뿌리는 나무 전체를 받치고 있는 것이므로 피검사자의 현실 지배력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나무그림에서의 뿌리는 상징적으로 그 사람이 내적으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감,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와 관련될 수 있다.  
① 지나친 뿌리의 강조는 자신감이 결핍되어 있으며, 불안감정에 대한 반응이고, 정신분열증, 기질장애 등으로 의심해봐야 한다.  
② 지면의 선을 강조한 그림의 선을 통과하여 뿌리를 그리고, 선 밑으로 나무줄기에 비해 큰 뿌리를 그리면 현실 적응에 크게 장애가 있음을 뜻한다.   
③ 마른 나무줄기에 마른 나무뿌리를 그리는 것은 유아 때부터의 경험과 연관짓는 우울한 감정의 표시로서, 자살을 기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5) 나무주제**  
때로 나무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거나 단순하게 나무만 그리지 않고 어떤 주제를 담은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주제는 그 사람 개인이 경험하는 갈등과 정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① 나무에 개가 오줌 싸는 것을 함께 그린 경우 이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자기 존중감의 결여, 부적절감등을 함축한 것일 수 있다.  
② 나무를 베는 남자를 함께 그린 경우 상징적으로 나무를 베는 남자는 아버지상이 투사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단절감, 거세불안, 억압된 분노, 손상된 감정 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③ 사과나무를 그린 경우 피검자는 자기 자신은 과일에, 나무에는 어머니를 투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애정욕구와 관련하여 어머니로부터 거절당한 느낌, 좌절감을 경험한 아동이라면 과일이 모두 땅에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과일을 모두 따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④ 죽은 나무를 그린 경우라면 이는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음’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당한 부 적응적 양상 혹은 정신 병리적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 우울증, 기타 다른 신경증 환자에게서 고루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예후가 부정적일 소지가 높다. 또 나무가 죽은지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 피검자의 정신 병리적 특성, 혹은 무망감이 얼마나 지속되어 온 것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⑤ 열쇠구멍모양으로 그렸을 경우, 경험적으로 이러한 그림은 로샤검사에서 공백반응을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저항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검자들이 종종 그린다.

{기타}  
**(6) 나무나이**  
피검자의 심리적, 정서적 성격적 성숙정도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자기 자신보다 어린 나이의 나무를 그린 경우 이는 피검자가 매우 미성숙한 상태임을 의미할 수 있다.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다고 답한 경우는 이러한 내적인 미성숙함을 부인하거나 과시적인 태도를 통해 보상하고자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람]**

**{기타}**

**사람(Person)그림의 구조적 해석**  
사람그림에는 ‘자기개념’이라는 성격의 핵심적 측면이 투사되어 나타나게 된다. 사람그림에는 좀 더 그 사람의 의식적인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 자기표상, 자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투사된다.

{기타}

1. 나이 : 사람 그림의 나이는 자기 혹은 자기대상의 성숙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어떤 표상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준다. 나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림에서 자기 혹은 자기대상과 나이가 ±5년 미만으로 차이날 경우는 그러한 성숙도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이가 5년 이상 적은 경우 성격적인 미성숙함을, 5년 이상 많은 경우는 내적인 성숙함과 관련된 불안감을 과잉보상하려는 의미일 수 있다. 또 나이가 너무 많거나, 막연하게 그냥 ‘아주 많다’고만 표현할 경우 이는 내면에 우울감이 있고 유능감이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기타}

2. 행동 : 걷거나 말하거나 웃거나 공놀이를 하거나 등의 주장적이고 표현적이면서 비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활력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거나 앉아있는 모습을 그릴 경우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기괴하거나 난폭한 행동이 표현된 경우 성격구조적인 미숙함이 매우 심하거나 더 나아가 사고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때로 실제 사람이 아닌 그림이나 동상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기 정체감의 혼란과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기타}

3. 생각 : 그림 속 인물이 다른 활동이나 친구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 이는 자기개념이 건강함을 의미할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 혹은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 혹은 적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답한 경우 회피적 태도와 수동성 및 절망감, 우울감이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

{기타}

4. 느낌 : 그림 속 인물이 느끼는 감정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경우는 역시 자기개념이 건강함을 의미할 수 있다. 우울하거나 자기비판적인 감정일 경우는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음을, 화가나거나 공격적인 감정일 경우는 억압된 분노감이나 적대감,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 아무 느낌이 없다고 대답하는 경우는 회피성과 수동성, 우울감과 위축감이 있음을, 기괴하거나 부적절한 감정을 대답하는 경우는 현실 판단의 장애, 사고장애를 시사한다.

{기타}

5. 주제 : 마녀, 귀신처럼 비현실적인 인물을 그리는 경우는 현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대인관계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성인과 같은 종교적 인물을 그리면 자기정체성과 관련된 비현실감이 있거나, 성적인 것이나 공격적인 것이 배제된 모습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반면 광대나 만화처럼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사람을 그릴 경우는 열등감이 있거나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 때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

**{머리}**

**머리(지적 능력, 공상 활동)**  
머리는 개인의 지적 능력과 공상 활동을 상징합니다. 만약 머리가 지나치게 크게 그려진다면, 이는 자신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과시적 욕구가 있거나, 반대로 지적 능력에 대한 불안을 보상하려는 심리, 혹은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상에 몰두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머리가 지나치게 작거나 왜소하게 표현되면, 지적 능력을 포함해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감이나 부적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머리를 아예 생략하거나 비현실적으로 세모, 네모 등의 모양으로 그린 경우에는 사고장애나 신경학적 장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얼굴}**

**얼굴(외부 환경,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  
얼굴은 대인관계와 외부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얼굴의 방향이 측면이면 외모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뒷모습(뒤통수로 그림)은 사회적 접촉 회피, 극심한 수치심, 억압된 분노 및 경계심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신체는 정면이나 얼굴만 측면인 경우엔 사고 장애, 심리적 퇴행, 지적장애 또는 뇌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눈을 지나치게 크게 그리면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에서 예민함이 두드러지고, 눈이 작으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 회피 경향을 보입니다. 눈을 진하게 강조하면 상호작용에서 의심이 많고 방어적이며, 편집증적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쪽 눈만 그린 것은 교류에 대한 양가감정이 느껴진다는 뜻이고, 눈의 생략은 극심한 사회적 불안이나 사고 장애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귀가 지나치게 크면 대인관계에 매우 예민함을, 귀가 작거나 생략되면 정서 자극을 피하려거나, 대인관계 불안 ‧ 위축을 보입니다. 귀걸이 등 장식은 자기 과시나 대인 불안에 대한 보상심리(남아의 경우 반항, 거부감)를 시사합니다.  
코가 크면 외모나 정서 자극에 민감하고, 작거나 생략하면 대인관계에서의 두려움과 위축을, 콧구멍을 강조하면 미성숙하고 공격적인 대인 행동이 드러납니다.  
입이 지나치게 크면 정서 교류에서 불안감을 과도한 주장성이나 공격성으로 보상하려는 심리, 입이 작으면 상처를 피하고자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입을 없애거나 치아를 강조할 경우엔 애정 교류에 대한 좌절, 무능감, 불안, 양가감정이 두드러집니다.  
턱이 너무 크면 자기 주장적 태도가 지나치게 표출될 수 있고, 턱을 거의 그리지 않거나 생략하면 자기주장성 부족과 위축이 반영됩니다.

**{목}**

**목(경험에 대한 통제)**  
목은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목이 가늘고 길게 그려졌다면, 충동 통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행동과 생각을 일부러 거리를 두려 하거나, 공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뜻합니다. 짧고 굵은 목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강하게 통제하며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을 생략하면 통제력이 약하거나, 충동 조절이 어렵다는 뜻이고, 해리장애·뇌기능 장애 또는 사고장애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팔 및 다리}**

**사지(현실 대처 능력, 세상과의 상호작용)**  
팔이 길거나 굵게 그려지면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부적절감을 보상하려 노력하며, 짧거나 약하면 수동적이고 억제적인 현실 대처 태도가 강조됩니다. 팔을 몸에 딱 붙이거나 안으로 모으는 양상은 억제경향성이 심함을, 밖으로 활짝 뻗은 팔은 세상과의 적극적인 교류 욕구를 의미합니다. 팔짱을 낀 모습은 의심, 적대감, 자기보호 혹은 방어적 태도를, 팔 생략은 심한 우울이나 정신증적 퇴행(지각 왜곡)의 신호가 됩니다.  
손이 지나치게 크면 대처능력 결핍을 보상하는 것이고, 작으면 자신감 부족과 수동성, 의존적 태도를 뜻합니다. 주먹을 쥔 손은 억압된 공격성을, 주머니 속의 손은 회피경향성이나 심한 양가감정을, 손톱이나 관절의 세밀한 묘사는 불안이나 공격성을 강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줍니다. 손을 아예 생략하면 상호작용에 대한 열망도 있으나 부적절감이 심하다는 반증입니다.  
다리와 발은 현실에서의 목표 성취와 자율성,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다리가 길거나 발이 크면 현실대처 결핍이나 자율성 부족을 과잉보상하려는 경향이 있고, 가늘고 짧은 다리, 작은 발은 자신감 부족, 수동성, 독립성 부족을 나타냅니다. 다리를 넓게 벌린 그림은 내면 불안정에 대한 반항적 보상욕구가, 다리를 딱 붙인 모습은 경직성과 융통성 부족을 반영합니다. 발 끝이 뾰족하면 적대감, 공격성, 억압된 공격성이 드러납니다. 사지를 생략한 경우는 독립성 결핍, 자신감 부족, 대인관계에 대한 양가감정 표현입니다.

**{기타}**

**기타 신체부위**  
몸통은 개인의 내적 힘을 의미합니다. 몸통이 굵거나 크면 강한 심신 에너지와 행동화 경향을, 작고 가느다라면 허약하고 수동적인 성격을 뜻합니다. 몸통의 생략은 지적 장애, 뇌손상, 정신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몸통에 단추를 그리면 안정감을 타인에 의존하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지나치게 크면 책임지려는 의지가 과도해 권위적 태도가, 작고 좁은 어깨는 책임 두려움, 위축감, 수동성을 나타냅니다.  
가슴이나 유방이 너무 크면 성적매력 과시 또는 의존욕구 불안에 대한 과잉보상, 너무 작으면 자기부적절감, 성정체감의 갈등, 낮은 자기평가(특히 남성 그림에서 여성 자기대상 낮게 평가)로 해석됩니다.  
허리선을 과도하게 그리거나 허리벨트로 가리는 것은 성적 행동에 대한 불안감, 통제욕구 또는 회피를 의미합니다.  
내부기관이나 성기를 그리는 것은 현실검증력 손상, 자아기능의 붕괴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기타}**

**전체적 특징**  
그림이 유독 화려하거나 정교할 경우 자기과시 욕구나 강박 성향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체 상태를 그린 경우는 자기방어가 취약하거나 성적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

**(1) 머리**  
머리는 지적 공상적 활동, 충동과 정서의 통제, 사회적 의사소통 등의 중추이다.  
정상인은 대개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머리와 얼굴에 보다 주의를 두어서 그린다. 반면, 우울하거나 철수되어 있거나 신경증적인 문제가 있는 등의 부적응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  
**① 큰 머리 :** 지적 욕구가 강하고, 정신작용의 중요성을 무의식적으로 강조하며 적극적이고 공상적인 욕구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② 머리가 지나치게 큰 것 :** 대뇌수술을 받은 자 등 두통에 민감한 사람, 기질장애자, 정신지체, 자기애 경향의 사람, 지적인 면에 허영이 강한 자, 편집증적 자아 확대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③ 머리가 작은 사람 :** 강박적이거나 지적 통제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에서 죄악감의 원천을 부정하거나, 지적 무력감이 있는 사람 등이 그리는 경향이 있다.

**{얼굴}**

**(2) 얼굴**   
얼굴은 개인적 만족이나 불만족을 전하고, 상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중추이다. 일반적으로 얼굴을 강조하는 것은 타인관계와 자신의 외관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관심의 표시이다. 얼굴의 표정을 생략하는 것은 정상인에게도 나타나지만 대체로 현실적 후퇴를 의미하며 겁이 많은 사람들이다.   
**① 입 :** 입은 관능적 만족의 원천으로, 아동의 그림에서는 머리와 입이 가장 어려서부터 나타난다. 큰 입, 특별한 형태의 입, 지우개로 지운 입, 강한 선으로 강조한 입은 유아기로의 퇴행을 시사하고, 구순기에 고착한 알콜 중독자나 우울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며, 성적 문제를 지닐 수도 있다. 입을 특별하게 강조하면 구순적 공격의 충동에서 불안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② 턱 :** 턱은 전형적으로 힘과 결단력을 상징한다.  
**③ 눈 :** 눈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다. 감아있는 눈은 자기의 공상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애가 강해져 외계와의 차단 및 자발성을 잃은 상태이며, 눈이 강조되어 있음은 외계에 자신을 나타내려는 것으로써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나, 너무 지나친 강조는 주위 획득을 위한 표현인바, 의존적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너무 큰 눈은 경계심, 시기심과 관련이 있고, 모자나 안경으로 숨겨져 있는 그림의 눈은 불쾌한 자극으로부터의 도피욕구와 외계를 의심하는 심리상태이다.  
**④ 눈썹 :** 눈썹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머리카락의 의미와 같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⑤ 귀 :** 귀는 기능적으로 보아 비교적 수동적 기관이다.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귀의 형태의 왜곡, 잘못된 위치, 세밀한 묘사 등은 그 크기의 강조나 덧칠보다 병리적이다.  
**⑥ 머리카락 :** 육체적 욕구와 관계가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성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발의 강조는 남성 충동의 지표로 볼 수 있다.  
**⑦ 코 :** 성적 상징으로 생각되고 있다. 코의 지나친 강조는 성적으로 약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특수한 형태의 코는 성적 열등감, 성적 불능, 동성애, 거세공포를 뜻한다.

**{목}**

**(3) 목**  
목은 신체(충동)와 머리(지적 통제)의 연결부위로서의 의미가 있다. 굵고 짧은 목은 충동적이고 완고한 성격이고 가늘고 긴 목은 분리성격, 정신분열증 경향, 목이 없는 그림은 충동 통제가 안되는 아동, 정신지체, 퇴행, 미숙, 자기애적 경향이고, 또한 옆얼굴에 목이 없는 것도 통제성 결핍된 경향이다.

**{팔 및 다리}**  
**① 팔 :** 팔은 물리적 환경의 통제자로, 자아발달과 환경과의 접촉,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을 나타낸다.  
**② 손가락 :** 환경과의 실제 접촉 지점이며 조작의 도구이다. 건설, 파괴, 공격에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손가락은 중요한 부분으로, 아동의 경우 손보다 손가락을 먼저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③ 다리와 발 :** 어깨, 팔과 함께 접촉을 위한 부위이다. 신체를 유지하고 균형을 취하는 기능을 하며, 안정감이나 불안정감, 신체적 ․ 심리적 이동성과 관련 있다.

**{기타}**

**④ 유방 :** 남성이 여성상에 유방을 강조하는 것은 의존 욕구와 성충동의 결합을 나타낸다. 유방을 그릴 때 다시 그리고 음영을 그리거나 부가적인 선을 강조하는 것은 정신적, 성적 미성숙한 남성 또는 구순적 의존 욕구에서 기인한다.  
**⑤ 어깨 :** 어깨는 체력과 체격을 나타내며 남성적인 힘의 상징이다. 비행소년, 폭력범들이 넓은 어깨를 그리며 이것을 통하여 힘의 욕구를 나타낸다.   
**⑥ 허리 :** 허리는 등과 다리의 접선부위로써 남성은 신체적인 힘의 강한 충동을 나타내고, 여성은 양육에 관한 것과 생식기능에 대한 경계선의 위치이다. 따라서 허리의 선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성 충동에 대한 표현과 통제와의 사이에 갈등을 뜻한다.

**{의상}**

**(5) 의상 일반**  
**① 의복 :** 의복은 자기 신체에 대한 의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며 대인관계, 사회성에 대한 도덕적인 표현이다. 의복을 그리지 않고 나체상을 그리거나 성기를 그리는 것은 정신분열증이거나 아니면 성적 갈등, 성적 부적응, 사회에 대한 반항을 뜻한다. 의복을 평범하게 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강조하고 장식등을 꾸미는 것은 자기애적 경향을 말하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의 표시이며, 사회적, 성적 유혹적인 수단이다. 의복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허름한 의복은 현실적 도피에서 공상세계를 꿈꾸는 것이다.  
**② 단추 :** 모성의존을 나타냄. 이때 지나치게 강조된 단추, 7개 이상 그리는 단추 등은 의존적이며 유치하고 무력함을 뜻하며 구순단계의 퇴행, 고착을 뜻한다.  
**③ 호주머니 :** 단추와 같은 주머니의 강조는 유아적 의존이다.  
**④ 넥타이 :** 넥타이의 강조는 청년기의 그림에 많이 나타나는데, 남성적인 것이며 성과 관계 짓는 것이다. 작은 넥타이는 성적 무력감을 나타내며, 지나치게 강조한 넥타이는 성적인 부족력과 과잉보상 반응이다.